



내일밤 인도전

다득점 노린다

구자철, 이동국 이후 11년만에 아득점왕 도전…조 1위 8강 특명



ROAD TO THE FINALS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11년 만에 한국인 득점왕이 나을 수 있을까.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아시안컵에서 구자철(22·제주)은 두 경기에서 세 골을 터뜨리며 득점 부문 2위에 올라 있다.

4골을 넣은 이스마일 압둘라티프(바레인)에 뒤진 단독 2위 구자철은 2000년 레바논 대회에서 6골을 넣어 득점 1위를 차지한 이동국(32·전북) 이후 11년 만에 한국인 득점왕 후보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가 아시안컵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1964년 2회 대회 조윤우, 1980년 7회 대회 최순호, 1988년 9회 대회 이태호, 2000년 12회 대회 이동국 등 네 차례 있었다.

현재 득점 2위인 구자철이 오히려 강력한 득점왕 후보로 평가받는 것은 18일 오후 10시 15분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이번 대회 최약체로 꼽히는 인도 경기를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득점 1위 압둘라티프도 바로 인도와 경기에서 만 골을 몰아쳐 단숨에 득점 1위로 나섰다. 또 인도와 1차전을 치른 호주도 팀 케이힐이 두 골을 터뜨리는 등 구자철 역시 인도를 상대로 '멀티 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구자철이 인도를 상

대로 다득점 사냥에 성공하면 득점왕에 오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셈이다. 게다가 알둘라티프는 호주와 3차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득점왕 경쟁 대열에서도 탈락하게 된다.

바레인과 1차전에서 두 골, 호주와 2차전에서도 한 골을 넣는 등 최근 골 감각이 절정에 올라 있는 구자철로서는 득점왕에 욕심은 절만의 상황이다.

그러나 구자철은 호주와 경기를 마친 뒤 '득점왕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들뜬 마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호주와 경기 후반에 저력을 하양상을 보이며 교체됐던 터라 한 수 아래인 인도와 경기에서도 많은 시간을 뛰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구자철로서는 '아시안컵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에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 대회에서 최다 골 기록은 1996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에서 알리 다이에(이란)가 기록한 8골이다. 당시 다이이는 한 국가와 8강 경기에서만 4골을 몰아넣으며 득점왕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했다.

구자철이 인도와 경기에서 세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 이번 대회 득점왕을 넘어서 아시안컵 사상 한 대회 최다 득점 기록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연합뉴스

2011 아시안컵 조별순위

순위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우즈베키스탄	2	0	0	+3	6
2 중국	1	0	1	0	3
3 카타르	1	0	1	0	3
4 쿠웨이트	0	0	2	-3	0

순위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일본	1	1	0	+1	4
2 오르단	1	1	0	+1	4
3 시리아	1	0	1	0	3
4 사우디아라비아	0	0	2	-2	0

순위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호주	1	1	0	+4	4
2 대한민국	1	1	0	+1	4
3 바레인	1	0	1	+2	3
4 인도	0	0	2	-7	0

16일 오전(한국시간) 현재

/연합뉴스

북한 꺾은 이란 8강 선착

이란이 골대 불운에 시달린 북한을 꺾고 2연승을 거두며 2011 아시안축구 본선에 오른 16개 팀 가운데 가장 먼저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란은 15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스포츠클럽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대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북한을 상대로 후반 17분 카림 안사리 파드의 결승골이 좌절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8강 진출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후반 인저리타임에 홍영조

의 결정적인 슛이 크로스비를 때리면서 동점 기회를 놓치고 패배의 고배를 맵니다.

1차전에서 이라크를 꺾었던 이란은 북한까지 꺾고 2연승(승점 6)을 거두면서 남은 경기에서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8강에 올랐다. 반면 1무1패(승점 1)를 거둔 북한은 오는 20일 예정된 이라크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8강 진출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 FC, K리그 첫 상대는 대구

광주 FC가 오는 3월 5일 대구 FC를 상대로 프로축구 K리그 데뷔전을 갖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1년 K리그 대진抽選을 했다.

이날 추첨에 따라 2011년 신생팀으로 출격하는 광주는 3월 5일 안방에서 대구와 만나 K리그 대장정에 돌입한다.

대구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광주는 10월 30일까지 흠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모두 30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부산, 전남, 강원, 상주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광주FC 관계자는 "맹주위 속에서도 강진 전지훈련을 통해 열심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응원이 더해진다면 이를 시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며 "개막전에서 영·호남 간의 우의를 다질 수 있는 페어플레이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월 5일 안방서 대장정 돌입

컵 대회 전남 등과 B조 편성

된다.

또 11월 19일 6강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며 2011 시즌 정상을 가리는 월드컵 결승전은 11월 30일과 12월 4일 열린다.

A, B 2개조로 나뉘 조별리그로 치러지는 컵 대회에서 광주는 울산,

워드, 역전승 이끈 천금의 터치다운

NFL, 피츠버그 PO 진출

한국계 하인스 워드(35·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천금 같은 터치다운을 터뜨리며 팀을 미국프로풋볼(NFL) 콘퍼런스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다.

워드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피츠버그 하인즈 필드에서 열린 2010-2011 NFL 디비전 플레이오프 블리모어 레이븐스와 경기에서 14-21로 뒤져 패색이 짙었던 3쿼

터 후반 터치다운을 끊어 승리의 발판을 높였다. 피츠버그는 블리모어의 파상공세에 시달리며 2쿼터까지 14점차 뒤졌지만 워드의 동점 터치다운으로 추격의 불을 지핀 뒤 4쿼터 종료 직전 터진 끌어온 터치다운에 힘입어 31-2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5번 패스를 받아낸 워드는 총 전진거리는 39야드에 머물렀지만, 3쿼터 종료 1분 20초 전 퀄터백이 던진 끌어온 패스를 촘촘한 수비벽을 뚫고 받

아내 곧바로 터치다운을 찍으며 전세를 단숨에 피츠버그 쪽으로 가져왔다. '지역 라이벌' 블리모어를 꺾은 피츠버그는 디비전 우승을 차지해 24일 치러지는 콘퍼런스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됐다.

슈퍼볼 최다 우승팀(6회)인 피츠버그는 17일 열리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뉴욕 제프 경기의 승자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슈퍼볼 진출을 놓고 단판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스 워드(왼쪽)가 16일 피츠버그에서 열린 2010-2011 NFL 디비전 플레이오프 블리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 8야드 전진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도원 바둑역사 새로 쓴다

정관장배 7연승… 대회 최다 연승 경신



"정관장 배 7연승으로 자만하지 않고 남은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항저우 항저우

기원에서 열린 제9회 정관장배 세계여러바둑회 강1라운드에

서 7연승으로 대회 최다 연승 신기록을 달성한 문도원(19) 2단은 "지금까지의 결과보다는 앞으로의 대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관장의 역사를 다시 쓴 부산

출신의 문도원은 7살 때 언니와

함께 바둑돌을 처음 잡았다. 이후

흑백의 조화에 흥뻑 빠져든 문도

원 2단은 서울에서 연구생 선발

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

니를 끌어 방학을 이용해 출전했

다가 학폭했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시작한

연구생 생활이 쉽지 wasn't 않았다.

2살 위인 김윤영은 물론 동갑내

기 박지연, 이슬아, 김미리에게

밀리며 강등당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

고 결국 지난 2008년 3월 여류입

단대회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다.

문도원은 이번 대회 내내 초반

평범, 중반 회복, 후반 역전의 공식

을 보여주며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문도원은 정관장 배 7연승으로

서부수 9단이 갖고 있는 연승전

방식 단일 대회 최다연승 기록(9

연승)에 2승차로 다가섰으며, 정

관장배 최종 우승국을 결정짓는

2차전은 오는 3월 22일 한국에서

열린다.

지역 우수선수 발굴

시체육회 10억 조성

광주시체육회가 지역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장학기금 10억원을 조성한다. 시체육회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체육인재장학기금 운영 규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기부금과 장학기금 조성 사업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